신채호의 독립운동과 역사인식의 변화*

김 기 승**

Ⅰ. 머리말
Ⅱ. 단재 신채호의 생애
1. 가문과 성장
2. 성균관 수학과 구국계몽운동의 전개
3.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
4. 3.1운동 이후 무장투쟁 노선 채택
5. 무정부주의 운동과 민중직접혁명론의 제시
6. 옥중에서의 민족사 연구
Ⅲ. 「독사신론」과 『조선사연구』 '총론'의 역사인식 비교
1. 「독사신론」의 역사인식
2. 『조선상고사』 '총론'의 역사인식
Ⅳ. 1910년 이후 독립운동론의 변화
Ⅴ. 상상의 역사로 나타난 혁명사관, 「용과 용의 대격전」
Ⅵ. 맺음말

Ⅰ. 머리말

단재 신채호(1880~1936)는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한국 근대

* 본고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홍범식 순국 100주년 및 신채호 탄신 130주년 기념 독립운동사 학술회의(2011년 8월 21일)에서 발표한 '신채호의 독립운동과 역사인식'에 5장을 추가하는 등 수정·보완한 연구이다.
** 순천향대학교 국제문화학과 교수

민족주의 역사학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실천적 지성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그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업적이 축적되었다.[1]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재의 역사관이 1910년 이전 구국계몽운동기의 영웅주의에서 1920년대 무정부주의적 독립운동기의 민중주의로 바뀌었음이 지적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관의 변화가 그의 대표적인 저술인 『조선상고사』을 비롯한 역사서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었다. 필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단재의 역사관을 1910년 이전을 사회진화론에 의거한 진화사관으로 1920년대 이후를 민중직접혁명론에 의거한 혁명사관으로 대비하면서, 이러한 사관의 변화가 『조선상고사』'총론'과 여러 역사서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연구한 바 있다.[2]

본고는 지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독사신론」과 『조선상고사』 '총론'에 나타난 단재의 역사인식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의 역사관이 강자 중심의 사회진화론적 진화사관에서 약자 중심의 혁명사관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이러한 비교를 통해 나타난 양자의 역사인식 차이가 1910년 국외 망명 이후 독립운동론의 변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토대로 1920년대에 확립된 민중직접혁명론이 「용과 용의 대격전」이라는 역사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한다.

---

1) 신채호에 관한 연구서로는 최홍규, 『단재 신채호』(태극출판사,1979) ; 임중빈, 『단재신채호 전기』(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80) ; 단재 신채호선생 탄신 100주년기념논집 『단재신채호와 민족사관』(형설출판사,1980) ; 신일철, 『신채호의 역사사상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81) ;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한길사, 1984) ;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형설출판사,1986) ; 이만열,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연구』(문학과지성사,1990) ; 「신채호 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과제 특집」, 『한국사학사학보』 3(2001) ; 배용일,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상의 비교연구』(경인문화사, 2001)등이 있다.

2) 김기승, 「신채호의 진화사관과 혁명사관의 대치」,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단재 신채호의 현대적 조명』(도서출판 다운샘, 2003), 141-166쪽.

본고에서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신채호의 역사 저술이다. 첫째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독사신론」으로, 이는 중화주의적 역사관을 배격하고 민족주의적 역사관의 수립을 제창한 사론적 글이다. 다음으로는 1931년 『조선일보』에 「조선사」로 발표되었다가 1948년 단행본으로 발표된 『조선상고사』이다. 여기서는 역사관과 역사연구 방법론이 기술된 '총론'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 본다. 그리고 저술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용과 용의 대격전」이다. 이것은 일종의 역사소설로서 신채호가 무정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민중직접혁명 노선을 취하고 있던 때에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민중직접혁명의 과정이 역사적 상상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Ⅱ. 단재 신채호의 생애

1. 가문과 성장

신채호는 1880년 12월 8일 충남 회덕현 산내면 어남리 도리미에서 농촌 선비 신광식과 밀양 박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3] 본관은 고령이며, 신숙주의 18세손이다. 출생지 도리미는 할아버지 신성우의 처가 안동 권씨의 집성촌이었다. 8세에는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로 이사하였다. 이 곳은 조부가 문과 급제 후 벼슬살이를 하다가 낙향하여 정착했던 곳이기도 했다. 가세가 기울고 신채호의 아버지가 돌아가자 처가 마을로 이주하여 살던 조부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청주 상당산 동쪽은 산동지방이라 하여 연산군대 이후 신씨

3) 신채호의 생애에서 출전을 일일이 밝히지 않은 내용은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 신채호전집 제9권 단재론, 연보』(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에 수록된 「연보」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가문이 정착하여 세거하면서 유력한 문중을 형성하던 곳이었다. 근대 이후 이곳에서 신채호를 비롯하여 신규식, 신백우, 신홍식, 신홍우 등 내로라하는 유수의 민족운동가들이 배출되었다.

채호는 본래 寀浩로 표기했으나 후에 采浩로 변경하였다. 아호는 정몽주의 단심가에서 취하여 일편단생과 단생으로 지었다가 뒤에 단재로 고쳤다. 아버지 신광식은 1887년 단재가 8살이었을 때 작고하였다. 이후 단재는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을 따라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고두미로 이사하여 생활하였다. 이곳은 할아버지 신성우가 문과 급제 후 벼슬을 하다가 낙향하여 정착했던 곳이었다. 단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주로 할아버지의 훈도를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할아버지는 기호학파 종장이자 산림으로 추앙을 받았던 고산 임헌회의 제자였으며, 문과 급제 후 정 6품 사간원 정원을 지냈다. 낙향해서는 향리에 한문 서당을 열어 학동들을 가르쳤다. 할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단재를 6살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다. 한 번 가르쳐서 알지 못하고 암송하지 못하면 심하게 매를 때렸다고 한다. 단재는 9살에는 『자치통감』을 마쳤고, 10살에는 한시를 짓기 시작했으며, 14살에는 사서삼경을 독파했다.

단재가 15살 때의 일이다. 하루는 조부가 단재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보고 흐리고 못났다 하니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다. 이 말에 단재는 "나보고 못생겼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별수 없습디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예는 그가 확실한 주견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당차고 자존심 강한 아이였음을 말해 준다. 그가 어려부터 독서 습관이 체질화된 것은 사회성이 부족한 그의 성격 탓도 있었을 것이다.

2. 성균관 수학과 구국계몽운동의 전개

1897년 19살 때 단재는 할아버지의 권유로 양원 신기선의 제자가

되었다. 신기선은 임헌회의 제자로서 동도서기론적 견지에 섰던 개화파 관료였다. 목천에 있는 신기선의 서재에는 한적뿐만 아니라 개화 서적들도 있었다. 단재는 이 때 수많은 서적들을 접하면서 개화사상에 눈을 떴다. 이듬 해 단재는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학하여 변영만, 조소앙 등과 함께 수학했다. 이 때 성균관에서는 전통적인 유학과 서양의 근대 학문 교육을 병행하고 있었다. 변영만의 회고에 의하면, 신채호는 속독에 능숙한 독서광이었으며, 종로의 서점가와 친구 집을 돌아다니며 독서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고 한다.

단재는 1898년 상경한 이후 개화 서적들을 광범하게 읽고, 독립협회 운동에도 참여하면서 개화자강사상가로 변모했다. 1901년에는 신규식과 함께 가덕 인차리에서 문동학원을 차려 교육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한문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단재는 우국 청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1904년 정부에서 황무지 개척권을 일본에 양도하려고 하자, 조소앙 등 성균관 유생들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성토문을 작성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1905년 성균관을 졸업하여 박사가 되었다.

신채호는 성균관 졸업 후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장지연의 초청으로 『황성신문』 논설기자가 되었다. 그러나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으로 『황성신문』이 일시 정간되자 1906년 단재는 양기탁의 추천으로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 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한국명 배설)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통감부의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신채호는 당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았던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소신 있게 항일 구국 논설을 발표하면서 문명을 날리게 되었다. 1907년에는 비밀 결사 신간회가 결성되자 이에 참여하였다. 이후 수많은 구국계몽 논설을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발표했다.

단재의 구국운동의 목표는 한민족이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하여 생존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문명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는 실추된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민족정신의 확립을 통한

국민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국가란 '민족정신의 유기체'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단재는 구국계몽운동기 애국심을 강조했고, 애국심 고양의 방법으로 민족주의 역사학의 수립을 주장했다. 이에 많은 민족사 관련 저술을 남겼는데, 그의 역사서술에서는 영웅주의적 사관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그는 1907년 중국의 변법사상가 양계초의 저서 『이태리 건국 삼걸전』을 번역 · 간행했다. 나아가 한국인의 민족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민족에 대해 민족 자주성을 확립했던 인물로 을지문덕, 이순신, 최영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전기를 저술했다.[4]

구국계몽운동 시기 단재의 역사인식이 가장 잘 나타난 저술은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한 「독사신론」이다.[5] 여기서 그는 역사학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면서, 당시의 역사교과서가 민족정신이 결여되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애국심과 민족 자주성을 고취할 수 있는 민족주의 사학의 확립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3.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

1910년 4월 일제의 구국운동 지도자들에 탄압이 노골화하자 신채호는 신민회의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계획에 따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다. 망명 시 그의 손에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들려져 있었다. 안동을 거쳐 청도에 도착한 그는 안창호 등 신민회 간부들과 만나 독립운동의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길림성 밀산부에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신채호는 이곳의 무관학교에서

---

4) 신채호, 『을지문덕』(광학서포, 1908) ; 「수군제일위인 이순신」, 『대한매일신보』 1908. 6. 11-10. 24 ; 「동국거걸 최도통」, 『대한매일신보』, 1909, 12. 9 - 1910. 5. 27.

5) 신채호, 「독사신론」, 『대한매일신보』 1908. 8. 27 - 12. 13.

국사와 한문 교사를 맡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이에 단재는 9월 밀산부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러시아에서 독립운동 방안을 모색했다.

국치 이후 단재는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렀는데, 1911년 이상설 등과 함께 권업회를 결성하였다. 권업회에서는 1912년 『권업신문』을 기관지로 발행했는데, 단재는 신문부 부장 겸 권업신문 주필로 활동했다. 권업회 활동기에는 청년권업회 기관지 『대양보』의 주필을 지내기도 했다. 노령 지역 한인 사회 내에서는 주요 세력들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이에 어려움을 느낀 단재는 노령 지역을 떠나고자 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망설이던 그는 1913년 봄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중국으로 갔다. 8월에는 신규식의 초청으로 상해로 가서 동제사에 가담하여 박달학원의 교사로 활동하면서 박은식, 조소앙, 문일평, 홍명희 등과 교류하였다. 이 때 김규식과 이광수로부터 영어를 배웠으며, 기본의 『로마흥망사』와 카알라일의 『영웅숭배론』을 원서로 읽었다. 상해 시기 신채호에 대해, 이광수는 그가 민족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애국심에 불탔던 지사로 기억했다.

1914년 단재는 대종교 지도자 윤세복 형제의 초청으로 봉천성 회인현으로 가서 대종교에 입교하고, 동창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윤세복이 세운 동창학교에서는 국사를 가르쳤는데,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조선사』를 집필했다. 이 때 시작된 『조선사』 집필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는 독립군 양성을 위한 기지를 물색하기 위해 만주 일대를 다니면서 고구려와 발해 유적을 답사하여 연구의 깊이를 더해갔다. 연말에는 거주지를 북경으로 옮겼는데, 1915년부터 북경대 도서관 등을 이용하면서 사색과 연구의 폭을 넓혔다.

1917년 7월 박은식, 신규식, 윤세복 등과 함께 해외 독립운동자의 대동단결과 이를 통한 임시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대동단결의 선언」에 참여했다. 이 선언에서는 1910년 8월 29일을 기점으로 황제 주권의 시대가 끝나고 국민주권의 시대가 되었으므로 국외 독립운동가들이 국

내 동포의 위임을 받아 주권을 행사할 통일적 지도기관, 즉 임시정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6]

4. 3.1운동 이후 무장투쟁 노선 채택

1919년 2월 북경에서 조소앙, 박은식 등 39인의 독립운동가 명의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해외 독립운동가들에 의한 무장독립 노선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국내의 3.1독립선언과 구별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북경에서 상해로 이동하여 4월 10일과 11일에 열렸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조직 회합에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단재는 무장투쟁론자였던 박용만을 추천했으나 부결되었다. 신채호도 현창운에 의해 국무총리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이승만이 국무총리 후보로 추천되자 단재는 그가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통치를 미국에 청원한 전력이 있음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당선이 확정되자 그는 격분하여 퇴장하고 말았다. 그러나 단재는 이후의 의정원 회의에 참여하여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충청도 의원으로 피선되기도 했다. 단재가 임정과 결별한 것은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한 뒤였다. 통합 임시정부는 국내에서 구성된 한성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상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와 노령에서 조직된 국민의회가 연합하는 형태로 출범했는데,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단재로서는 한국의 절대 독립을 부정하고 위임통치를 미국에 청원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에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임정과 완전히 결별하고 임정을 비판하는 활

6) 이에 대해서는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사학논총』 9(1987) 과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지영사, 2003), 194-202쪽 참조.

동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7]

단재는 1919년 10월 남형우 등과 함께 상해에서 잡지『신대한』을 발간하였는데, 주간으로 지내면서 무장투장노선에 의거하여 임정을 비판하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또한 남형우가 단주인 신대한동맹단의 부단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때 단재는 여운형의 도일 외교도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다. 단재는 박은식과 김창숙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위임통치청원을 취소하라는 편지를 이승만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단재가 임정 비판에 앞장서자 임정 측의 반발이 거세져 『신대한』의 발행이 중지되었다. 상해에서의 활동이 여의치 않게 된 단재는 1920년 6월 노령 연해주로 건너가 박용만, 문창범 등과 협의한 후, 9월 활동의 근거지를 북경으로 옮겼다. 그는 북경에서 박용만 등과 함께 군사통일촉성회를 조직하였다. 1921년 4월 단재는 박용만, 신숙 등과 함께 북경군사통일회의를 개최하여, 상해의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단재는 김원봉, 김창숙 등과 함께 이승만과 정한경이 미국 정부에 위임통치한 것을 비판하는 『성토문』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 단재의 독립운동 노선은 임시정부의 외교독립노선과 준비노선을 비판하고 무장독립노선에 의거하고 있었다. 이에 노령과 간도 지역의 무장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하여 상해의 임정을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단재는 임정의 조직과 지도 노선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 수립을 위한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5. 무정부주의 운동과 민중직접혁명론의 제시

1922년 12월 단재는 의열단 의백 김원봉으로부터 선언문 집필을

---

7)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 연구』(한길사, 1984), 40-42쪽.

의뢰받아 상해로 갔다. 단재는 무정부주의자 유자명과 함께 합숙하면서 선언문을 기초하여 1923년 1월 의열단 「선언문」을 완성하였다. 이 선언문은 1910년대 발전해가던 단재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이행해 갔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선언문은 한국 민족해방운동사 전체의 차원에서도 한 획을 긋는 역사적 문건이다. 전 5장 6,400여자로 구성된 선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였다. 제 2장에서는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참정권운동과 자치운동은 일제의 지배정책에 타협하는 운동이며, 민족주의자들이 전개하고 있는 문화운동도 일제 식민통치에 기생하려는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제국주의를 절대 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잘못된 운동노선이라는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상해 임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 독립론과 독립전쟁준비론을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운동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제4장에서는 '혁명'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혁명처럼 특정 세력의 교체와는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조선 혁명은 '민중직접혁명'이어야 함을 선언했다. 제5장에서는 혁명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했다. 즉 '고유적 조선의', '자유적 조선 민중의', '민중적 경제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족통치', '특권계급', '경제적 약탈제도', '사회적 불평균',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 대상으로 설정하고, 폭력을 민중의 유일 무기라고 하면서 폭력의 구체적 예로서 '암살', '파괴', '폭동'을 제시했다. 의열단 선언은 그동안의 의열투쟁을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이라는 민중직접혁명론으로 이론화한 것이다. 이 선언을 계기로 단재는 이전의 영웅주의적 역사관을 탈피하고, 역사 발전의 주체를 민중으로 파악하는 민중주의적 역사관에 도달하게 되었다.[8]

1921년부터 추진된 국민대표회는 1923년 1월 상해에서 개최되었

8)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8권 독립운동』(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891-901쪽.

다. 국민대표회에서는 임정 문제를 둘러싸고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단재는 임정을 완전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창조론의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자 단재는 9월 창조파 단독으로 신정부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다. 그러나 노령에 근거지를 둔 신정부는 소련 당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곧 해체되고 말았다. 기대했던 독립운동이 벽에 부닥치자 단재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고자 북경의 관음사에 들어갔다. 그는 승려로 지낼 때에도 한국사 연구를 계속하였다.

단재는 1924년 가을 환속한 이후 국가와 민족을 넘어 무정부주의 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는 이회영, 유자명 등 무정부주의자들과 교류하는 한편, 러시아의 크로포트킨, 중국의 이석증, 일본의 고오토쿠 등 세계의 저명한 무정부주의자들의 글도 읽었다. 1926년 경에는 재중국무정부주의자연맹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1927년 9월 광동에서 중국, 조선, 일본, 대만, 안남, 인도 등 6개국 대표 120명이 모여 무정부주의동방연맹을 조직하자, 이 연맹에 대만인 임병문의 소개로 조선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1928년 4월에는 한국인 중심의 무정부주의동방연맹 북경회의 개최를 주도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선전기관 설립과 폭탄제조서 설치가 결의되었다. 이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신채호는 1928년 5월 위조 외국환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일본을 거쳐 대만의 기륭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일제 경찰에 의해 중국 대련으로 호송 수감되었다.[9)]

6. 옥중에서의 민족사 연구

단재 신채호는 1928년 12월부터 1929년 10월까지 대련지방법원에서 4회에 걸쳐 공판을 받고, 1930년 4월 언도공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과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5월의 종

9) 신용하, 앞의 책, 62-66쪽.

심 공판에서 10년이 확정되었고, 죄수번호 411번 중사상범으로 간주되어 독방에 수감되었다.

단재는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민족사 연구를 계속했다. 민족사에 대한 연구를 독립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914년 동창학교 국사 교재로 『조선사』 집필을 시작했던 그는 1920년대에는 북경대학 도서관에 출입하면서 각종 자료를 참고하였고, 양계초의 『중국역사연구법』 등을 읽으면서 역사연구방법론도 정련하였다. 이에 1924년 그는 새로운 역사관을 체계화한 『조선상고사』 「총론」을 완성하였다. 단재는 「총론」에서 역사를 '인류사회의 我와 非我와의 투쟁', 특히 '정신'을 강조하여 '아와 비아의 투쟁의 정신사'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투쟁주의적 역사인식은 구국계몽운동기 「독사신론」에 나타난 사회진화론적 경쟁에 의거한 민족주의적 경쟁사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아니라 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투쟁의 영원성을 강조함으로써 무정부주의와 민중직접혁명론의 요소가 그의 역사인식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단재는 1924년부터 1925년 사이에 한국 고대의 문자, 삼한 인식 등 한국고대사 연구논문들을 『동아일보』에 발표함으로써, 그의 민족사 연구 는 국내에도 소개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무정부주의적 북경사상이 반영을 「일목대왕의 철추 도「용과 용의 대격전」 등과 같은 역사소설도 저술하였다.

1928년 체포되어 수감된 후에도 단재는 민족사 연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된 노역에 종사하면서도 10분의 휴식 시간을 아끼면서 에스페란토어 학습과 한국사 관련 연구를 계속했다. 단재의 민족사 연구의 성과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감옥에 있던 1930년 이후의 일이었다. 1930년 『『조선사연구초』가 간행되었고, 1931년에는 「조선사」(『조선상고사』)와 「조선상고문화사」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단재는 「조선상고문화사」가 수정·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발표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는 석방된 후 수정하여 발표할 생각으로 옥중에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국조보감』이나 『조야집요』 같은 자료, 그리고 에스페란토 원문책과 자전을 보내 줄 것을 부탁했다.[10]

단재는 1935년 이후 고된 노역과 추위로 건강이 악화되어 출옥을 1년 8개월 앞 둔 1936년 2월 21일 이국 땅 여순 감옥에서 독립지사로서의 장엄한 일생을 마쳤다.

Ⅲ. 「독사신론」과 『조선사연구』 '총론'의 역사인식 비교

1. 「독사신론」의 역사인식

단재 신채호는 1908년 「독사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11]

> 국가의 역사는 민족 소장성쇠의 상태를 闡敍한 자라. 민족을 捨하면 역사가 無할지며, 역사를 사하면 민족의 其 국가에 대한 관념이 不大할지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其亦 重矣哉인저. ... 국가가 旣是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인즉 단순한 혈족으로 전래한 국가는 고사하고 혼잡한 各族으로 결집된 국가일지라도 必也 其中에 항상 주동력되는 특별종족이 有하여야 어시호 其 국가가 국가될지니 ...

이 시기 단재에게 있어서 역사는 곧 국가의 역사였는데, 이를 달

10) 신영우, 「조선의 역사대가 단재 옥중 회견기」, 『단재신채호전집』 하(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72), 442-444쪽.

11) 신채호, 「독사신론」, 『대한매일신보』 1908. 8. 27,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3권 역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5쪽.

리 표현하여 민족의 소장성쇠라고 하였다. 과거 전통적인 유교사관에 의하면 역사는 곧 왕조의 흥망성쇠였는데, 이러한 정의에 토대를 두되, 주체를 국가 혹은 민족으로 바꾸었고, 흥망성쇠라는 표현을 소장성쇠로 바꾸었다. 말하자면 그의 사관이 유교사관을 벗어나 민족사관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을 소장성쇠라고 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흥망성쇠라고 할 경우 망한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민족이나 국가가 없다면 역사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민족사관에 의하면, 소장성쇠하나 불멸하는 민족의 존재, 즉 역사의 영속적인 주체를 설정해야만 하였다.

단재는 민족을 종족이나 혈족과는 구별해서 보았다. 여러 종족과 혈족이 생존경쟁을 벌이면서 승리자와 패배자가 나타나게 되고, 승리자가 민족의 주동력되는 특별종족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민족사의 전개과정을 6개 종족의 생존경쟁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승리한 주종족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자 했다. 그는 단군의 후예인 우리민족을 선비족, 부여족, 지나족, 말갈족, 여진족, 토족 6개 종족으로 보았다. 몽고족과 일본족도 한민족의 역사에 관여하였으나 일시적인 것이어서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12]

> 其 六種 중에 형질상, 정신상으로 他 五種종을 정복하며 他 五種을 흡수하야 東國 民族 世位에 據한 자는 부여족 1종에 불과하니 盖 四千載 東國歷史는 부여족 盛衰消長의 역사니라. ... 旣往 동국역사는 즉 我 夫餘族의 역사니 此에 昧하고 역사를 坐談하는 자는 실로 譫語의 역사가니라.

12) 신채호, 「독사신론」, 『대한매일신보』 1908. 8. 29,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3권 역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6쪽.

단재는 한민족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6개의 종족 가운데 부여족이 지나족, 선비족, 말갈족, 여진족, 토족을 흡수하거나 정복하여 한민족의 주종족이 되었다고 보았다. 나머지 5개의 종족은 정복 또는 흡수당한 객족이 되었다고 하였다. 역사 서술에서는 바로 민족의 주종족을 먼저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못한 역사는 잠꼬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다.

1905년 이후 구국계몽운동을 전개하던 시기 단재는 사회진화론을 당시의 국가적 현실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였다. 당시의 사회는 자연의 동물계와 마찬가지로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우승열패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국권이 실추된 이유는 여러 강대국과의 생존경쟁에서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이 힘을 길러 강대국과 같이 되거나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단재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경쟁 단위는 국가와 민족이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한국인들에게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민족과 국가의 확립을 한국인이 힘을 기르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제에 의해 실추된 상황에서 현재의 국가가 국민적 구심점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혈연적 운명공동체로서의 민족이 중시되었다. 단재가 「독사신론」에서 동국 민족의 역사적 기원을 찾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

단재는 우리 민족은 6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그 중에서 우세한 종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민족이 대외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중 대외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는 우세한 종족을 찾아내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방 지역에 터 잡고 지나족과 대립하여 자주성을 발휘했던 부여족이 주종족으로 설정되었다. 한반도 내에 자리 잡았던 삼한이나 예와 맥은 토착종족이지만 북방의 부여족에게 흡수 병합된 존재

로 보았다. 「독사신론」에서 부여족은 단순히 고대 여러 종족 중의 하나가 아니라 고대에서 현재까지 한민족의 주종족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부여족이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승리자의 지위를 점할 것인지 아니면 패배자가 될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부여족은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까지 걸쳐 있는 우리민족의 주종족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동국역사'는 곧 '부여족의 역사'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2. 『조선상고사』 '총론'의 역사인식

단재 신채호는 『조선상고사』[13] 제1편 총론에서 역사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我와 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
>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느뇨. 깊이 팔 것 없이 얕게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선 자를 '아'라 하고, 그 외에는 '비아'라 하나니,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미·법·로… 등은 제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은 비아라 하며, 무산계급은 무산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 … 등을 비아라 하지만, 지주나 자본가 … 등은 각기 제붙이를 아라 하고, 무산계급을 비아라 하며, ... 그 밖에 무엇에든지, 반드시 본위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한 비아가 있고, 아의 중에 아와

13) 신채호의 「조선사」는 『조선일보』에 1931년 6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연재했으며, 동일 내용이 『조선상고사』라는 이름의 책으로 묶여 1948년 종로서원에서 간행되었다.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1권 역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5-600쪽.

> 비아가 있으면 비아 중에도 또 아와 비아가 있어,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繁極할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사회의 활동이 휴식될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나니,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니라.[14]

『조선상고사』 '총론'의 첫 문장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일반적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아'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대상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특정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민족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 내의 특정 부위나 사상, 국가와 사회 내의 특정 계급일 수도 있다. 단재는 역사를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으로 보았다. 투쟁은 휴식이 없으므로 역사는 완결될 날이 없다고 했다. 말하자면 역사 진행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투쟁 자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사는 조선민족이 다른 민족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된다.

단재는 조선사에 대한 구체적 서술 계획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조선민족을 我의 단위로 잡고', '아의 생장발달의 상태를 제1요건으로 하여' 민족의 성쇠와 변천을 다루며, 여진, 선비, 몽고, 흉노 등이 본래 동족이었다가 언제 분리되었는지, 그리고 조선민족의 현재 지위와 부흥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아의 상대자인 四隣 各族의 관계를 제2의 요건으로 하여' 서술하겠다고 했다. 과거의 것을 다루되 현재 서구 문화에 대한 대응 문제도 다루겠다고 했다. [15]

『조선상고사』 '총론'의 역사인식은 「독사신론」에서 제기된 한

14)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5권 신문·잡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25-226쪽.
15)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논설·사론』(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28-229쪽.

민족이 주체가 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한민족이 생존경쟁 혹은 투쟁에서 승리하여 역사의 계승자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적의식도 동일하다. 그러나 양자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독사신론」에서는 민족과 국가의 역사가 거의 유일한 절대적 존재로 상정되고 있는데 비해, 『조선상고사』 '총론'에서는 '인류'와 '사회'의 역사가 먼저 등장하고, 여러 역사 중의 한 분야로서 민족사가 상정되고 있다. 민족과 함께 계급의 문제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투쟁의 역사는 민족과 국가 사이의 투쟁뿐만 아니라 계급투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민족을 표현하는 용어와 개념이 달라졌다. 「독사신론」에서는 우리민족은 '아민족' 혹은 '동국민족'으로 표현하면서, 6개의 종족 중 부여족을 주족으로 나머지를 객족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상고사』 '총론'에서는 '조선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조선민족이 조선족, 선비족, 여진족, 몽고족, 퉁그스족으로 분화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조선민족은 한민족 내의 특수 종족을 의미하기도 하며 북방민족을 포괄하는 광의로도 사용되었다.

셋째, 민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한민족의 역사 서술 방식도 달라지게 되었다. 「독사신론」에서는 한민족의 중심이 되는 부여족을 추출해내고 그 부여족의 소장성쇠를 기술하는 것이 한국사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선상고사』에서는 민족 내 특정 종족 중 어떤 종족이 우세한 종족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그 대신에 광의의 조선 민족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차후 역사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민족사의 서술은 민족 내 여러 종족이나 왕국들의 변천의 계통을 짓는 작업이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민족 내부의 종족 경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조선민족이라는 '아' 가 중국의 한족이라는 '비아'와 어떻게 투쟁했는가가 서술의 중심이 되었다.

넷째, 『조선상고사』 '총론'에서는 역사를 정의하는 데 있어, '투쟁'이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비아를 정복하야 아를 표창하면 투쟁의 승리자가 되야 미래 역사의 생명을 이으며 아를 소멸하야 비아에 공헌하는 자는 투쟁의 패망자가 되어 과거 역사의 陳跡만 끼치나니 이는 고금 역사에 바꾸지 못할 원칙이라.[16]고 하였다. 투쟁은 곧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의미했다. 이 점에서 구국계몽운동단계에서의 생존경쟁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재는 '경쟁' 대신에 '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나아가 그 투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가 '비아'와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은 '아'의 내부에는 다시 '비아'가 나타나 또 다른 투쟁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Ⅳ. 1910년 이후 독립운동론의 변화

1910년 4월 단재는 국외로 망명하여 1936년 순국할 때까지 국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그가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게 된 상황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1910년 경술국치 이전은 비록 국권이 실추되기는 했으나 대한제국이 존재했고, 국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국계몽운동이 가능했다. 대한제국은 대외 주권은 상실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통감부의 통제 아래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힘을 기른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민족적 각성을 통해 국민적 단합을 실현한다면 국권 회복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통감부 체제는 사회경제 및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민족적 활동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가 '합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16)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5권 신문·잡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위의 책, 227쪽.

신채호가 1910년 8월 29일 국망 이전에 국외 망명을 결행했던 것은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신채호를 비롯한 신민회 간부들은 1910년 4월에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

신채호를 비롯한 구국계몽운동가들이 국외 망명을 결행했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했던 자강력 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이 실패로 끝난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국외로 탈출함에 따라 국내의 동포를 계몽하고 그들의 단합을 통해 국력을 길러 독립을 도모하는 방법은 현실적 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사회진화론에 의거한 자강력 양성이라는 방법으로 한국의 독립을 달성한다는 전략은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던 것이다.

단재는 국외 망명 전과 후의 상황의 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나라가 있을 때의 정신 자세와 나라가 없을 때의 정신자세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도덕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무국민의 특별도덕'을 말하였다. 나라가 없는 국민의 도덕은 나라가 있는 국민의 도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망국민의 도덕은 '유제한적이며, 무공포적이며, 국수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유제한적 도덕이란 세계주의를 거부하고 민족과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무공포적 도덕이란 국가와 민족의 복리를 위해서는 실행수단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국수적 도덕은 민족 고유의 전통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17]

단재가 무국민의 특별도덕을 제창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국외 망명 이후 이전과는 다른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그의 고뇌

17) 신채호, 「道德」, 『단재신채호전집』 하(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75), 140-142쪽. 신채호의 도덕관의 변화와 무국민의 특별도덕 제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김기승, 「단재의 사상적 변화와 유교」, 『대동문화연구』 29(1994), 288-295쪽과 「신채호의 진화사관과 혁명사관의 대치」,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엮음, 『단재 신채호의 현대적 조명』(도서출판 다운샘, 2003), 151쪽 참조.

를 읽을 수 있다. 1910년 이전 단재가 말하는 독립이란 사회진화론에 의거하여 약자인 한국이 자강력을 양성하여 강자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과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립의 방법은 약자가 강자로부터 강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강자의 침략과 지배는 타도하되, 강자는 약자가 배우고 모방해야 할 모델이었다. 그러나 1910년 이후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없어졌다. 한민족은 약자인 자체로서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야만 하였다. 이제 강자는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부정과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1910년 이전 근대 독립국가 만들기는 제국주의 강국의 국민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인은 강대국의 국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 나라가 없는 그리하여 강대국의 국민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다. 여기서 단재는 약자가 약자 자체의 힘으로 독립하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약자 집단으로서의 민중 개념에 도달하게 되었다.

1920년대 단재에게 있어서 독립운동의 주체는 민중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1923년 의열단의 의뢰를 받아 집필한 「선언문」이었다. 단재는 과거 일체의 도덕이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민중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한 '노예' 도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예 도덕은 강자인 소수의 지배계급에 대해 약자인 다수의 민중이 '반항'하지 않는 문화였다.[18] 무국민의 특별도덕, 약소민족의 특별도덕은 조선 민중의 '저항'적 도덕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19]

단재는 의열단 「선언문」에서 자치론, 외교론, 준비론 등을 비판하였다. 이것은 1920년대 초반 다른 세력들의 독립운동론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는 1910년 이전 자신이 견지했던 구국운동론에 대

18) 신채호, 「조선혁명선언」(1923. 1), 『단재신채호전집』 하(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75), 44-45쪽.

19) 1920년대 단재의 도덕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기승, 「단재의 사상적 변화와 유교」, 『대동문화연구』 29(1994), 288-295쪽 참조.

한 부인과 다름없었다. 그가 제시한 독립운동 방법론은 민중직접혁명론이었다. 여기서 피지배대중으로서의 민중은 현실적 약자이지만, 지배계급에 복종하는 노예가 아니었다. 지배계급을 부정하는 혁명의 주체였다. 물리적으로 약한 존재인 민중이 강대국과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무기는 '폭력'이었다. 민중이 가진 폭력혁명의 구체적 방법은 '암살, 파괴, 폭동'이었다. 이제 강자는 약자가 모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투쟁하여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강자가 갖고 있는 경제적 부나 군사적 무력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힘의 우열 관계가 없는 세계, 그리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剝削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20]

단재는 1920년대 중반 이후 폭넓게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무정부주의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에 그는 세계어로 에스페란토어를 학습하였으며, 여러 약소민족의 운동가들과 함께 활동하였다. 조선 민중의 혁명은 다른 약소민족의 혁명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단재는 민중에 의한 국제적 연대 관념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조선의 민족 문제를 유일한 절대적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 문제의 하나로 상대화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류 사회에는 민족 문제 외에 계급 문제가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민중이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을 타도하여 착취와 지배가 없고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이상으로 삼게 되었다. 약소민족으로서의 조선민족의 독립은 조선이 제국주의국가가 되어 다른 약소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직접혁명에 의해 인류를 일체의 권력과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길로 인식되었다. 독립운동론에 나타난 이러한 인식은 『조선상고사』 '총론'의 혁명사관에 조응하는 것이었다.

---

20) 김기승, 「진화사관과 혁명사관의 대치」,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단재 신채호의 현대적 조명』(도서출판 다운샘, 2003), 151-152쪽 참조.

Ⅴ. 상상의 역사로 나타난 혁명사관, 「용과 용의 대격전」

『조선상고사』에서 혁명사관에 의거하여 새롭게 인물을 평가한 사례는 연개소문이다. 그는 흔히 역성혁명이라고 불리웠던 조선 왕조의 성립을 '혁명'이 아니라 단지 정권 탈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이시애와 이괄의 반란도 내란일 뿐 혁명이 아니라고 했다. 혁명의 기준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다.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상 진화의 의를 가진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역사상의 혁명가로는 연개소문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연개소문은 비록 실패자이지만, '봉건 세습의 호족 공치제를 타파하여 정권을 일처에 집중하였으니, 이는 분립의 대국을 통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동시에 반대자인 호족 세력은 물론 당나라를 격파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개소문은 혁명가의 '기백'과 '재략'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그는 근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형성된 혁명 개념을 한국사 해석에 적용했던 것이다.[21] 이 점은 그가 역사를 '혁명' 개념에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혁명사관의 개략적 윤곽을 그리는 데 머물렀다. 그의 혁명사관은 실제 역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실증적 서술의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 세계를 떠난 정신세계 속에서 상상을 통해 창조적으로 재구성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의 역사서술은 근대 서구 학문의 구속에서 벗어나 한국 민중의 전통적인 역사적 상상의 세계로 나아갔다. 근대 서구 학문의 제국주의적

21) 김기승, 「신채호의 진화사관과 혁명사관의 대치」,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엮음, 『단재신채호의 현대적 조명』(도서출판 다운샘, 2003), 161쪽.

성격은 그의 민중직접혁명의 꿈을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22] 그가 선택한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몽유록과 우화가 결합된 소설 형식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나아가 실제 역사적 사실을 뒤바꾸어 새로운 역사를 창작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용과 용의 대격전」이 바로 그것이다.[23] 한국 민중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데에는 한국적 문학 형식, 즉 '조선적' 문화전통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920년대 초반 그가 제시한 민중직접혁명은 현실적으로 약자인 민중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자체의 능력으로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세계에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 그러기에 실제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만이 있을 뿐이었다. 실제 역사에서 민중적 존재는 패배자로서만 나타났다. 그러므로 민중직접혁명론에 의거한 혁명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역사를 전복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전복은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기성의 역사는 민중을 지배한 승리자를 정당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선택한 것은 한국 민중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던 전통적인 소설 형식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첫째, 그 스스로가 기존의 잘못된 지식 체계로부터 해방되어 한국의 민중의 정신 세계 속으로 몰입하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는 몽상과 우화를 통해 민중이 갖고 있던 사고의 전복을 시도함으로써 민중을 혁명적 주체로서 자각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말하자면 이것은 단재가 엘리트주의적 지식인으

---

22) 『조선상고사』는 양계초의 영향을 받아 서양 '신사학' 체제를 원용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총론'에서 그 자신의 고유한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이라는 혁명적 역사관을 제시했지만, 그 사관이 본론의 서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23) 「용과 용의 대격전」을 '변형된 몽유록'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우화소설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견해이든 그것인 한국 전통적인 문학 형식의 하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 민찬, 「단재 소설의 경로와 전통의 자장」,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엮음, 『단재신채호의 현대적 조명』(도서출판 다운샘, 2003), 84-86쪽.

로부터 민중적 지식인으로 변화하여 민중의 생각을 민중의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의 혁명사관은 종래의 승리자 중심의 역사관을 거부하고 패배자 중심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과 논리의 세계에서는 한계가 있었기에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희망과 꿈을 그려내는 역사소설 창작이라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상상의 세계에서 강자와 약자, 승자와 패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영웅과 민중, 선과 악은 완전히 전도된다. 역사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거꾸로 배치된다. 영웅과 승리자는 '약삭빠른 쥐새끼'로 반역자와 패배자는 혁명가로 뒤바뀐다.[24] 종교 지도자들은 '성인'에서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인'으로 묘사된다. 민중은 상제와 성인을 숭배하다가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는 존재로 바뀐다. 상제의 천국은 없어지고 민중의 地國만이 남게 된다. 상상으로 구성된 민중의 세계에서 민중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주 독립적인' 존재로 그려진다.[25] 민중은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일체의 '비아'에 대해 투쟁하는 주체로서의 '아'가 된다.

약자이며 피지배대중인 민중이 어떻게 기존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중이 세상인 지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사회진화론적 자강론에서 추구했던 부강은 제국주의자와 지배자의 무기였다. 약자가 부강하고자 하는 노력은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이다. 민중혁명이란 민중이 부강을 획득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강 자체를 부정하고 부강을 소유한 자들을 타도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약자인 민중이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혁명과 전복의 무기는 무엇인가? 신채호는 역사 속에서 억압받았던 민중이 자신의 존재를 지켜왔던 방식에 주목했다. 그것은 민중 신앙 속에서 면면히 계승되어 왔던 '저주'였다. 그는 노예들이 '無力의 힘을

24) 신채호, 「실패자의 神聖」, 『단재신채호전집』 하(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75), 125-126쪽.

25) 신채호, 「용과 용의 대격전」, 『단재신채호전집 제7권 문학』(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603-618쪽.

다하여 有力者의 금전과 철포를 대항하는 방법을 안출했다'고 하였다. 그것은 이른 바 '저주'라고 하였다. 그는 말한다. "거룩하다 저주의 힘이여! 약자의 유일무기가 아니냐?"[26]

「용과 용의 대격전」은 상제의 쌍생아인 미리와 드래곤의 싸움을 그린 역사소설이다. 동양의 미리와 서양의 드래곤은 모두 '용'으로 불리웠다. 상제를 모시는 천사로서 민중의 숭배를 받으며 민중을 지배했던 동양의 미리를 반역과 혁명의 상징이었던 드래곤이 대격전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상제와 미리는 민중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속이는 악당으로 묘사되며, 드래곤은 민중의 대표로서 민중을 해방시키는 혁명가로 묘사된다. 그러나 드래곤은 실체가 없다. 다만 '0'으로 묘사될 뿐인데, 이것은 수학 상의 '0'과는 다르다. '총, 칼, 불, 벼락, 테러'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천국, 일체의 지배세력을 '0'으로 만든다. 드래곤은 '0'으로만 표현되므로 어떤 존재인지 묘사될 수 없다.

드래곤의 실체를 드러낼 수 없음은 그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민중이기 때문이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드래곤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어떤 말과 행동도 묘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 인제는 천국의 말일이다.'라는 민중의 저주 소리만 반복적으로 들릴 뿐이다. 地國의 민중이 천국과의 단교를 선언하여 천국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적 저주만이 나타난다. 상제가 살고 있는 천궁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스스로 불타고 소멸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상제란 결국 '미신의 조작'임을 깨닫게 된다. 상제의 이름을 빌어 민중을 억압했던 일체의 지배세력의 미신에 불과한 것이었다. '억만 민중들은 고양이가 되고 과거 모든 세력자는 쥐가 되었다.' 그리하여 '왔다. 왔다. 드래곤이 왔다. 인제는 주의 말일이다'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천국의 상제를 정점으로 한 모든 지배권력은 민중의 저주에 의해 붕괴하고 만다.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민

---

26) 신채호, 「금전, 철포, 저주」, 『단재신채호전집』 하(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75), 127-128쪽.

중의 지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중이 상제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고 저주하는 순간 상제의 지배적 권위는 소멸한다는 것이다.

「용과 용의 대격전」은 민중직접혁명의 과정을 묘사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신채호는 동양의 전통적인 민중 신앙에서 나타난 '저주'와 서양의 '드래곤의 역사'에 나타난 혁명 개념을 결합시켰다. 그는 드래곤을 '0'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냈다. 약자인 민중이 갖고 있는 '무력의 힘'인 저주만으로 일체의 지배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 저주는 단순한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포함한 개념이었다. 이 점에서 그가 말하는 드래곤은 민중의 저주였다.

신채호는 「용과 용의 대격전」을 통해 약자인 민중 자신에 의해 힘 있는 자에 의한 지배와 억압의 역사를 종결시키는 민중직접혁명의 과정을 그려냈다. 그의 민중직접혁명론은 역사소설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Ⅵ. 맺음말

단재의 역사학 연구는 민족의 독립이라는 실천 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그는 독립국가 건설에 있어서는 정신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가는 민족정신의 유기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역사를 민족정신의 발현과정으로 파악했다. 그의 민족사 연구는 민족독립운동의 지적 실천이었다. 이에 따라 그의 역사인식의 변화는 독립운동론의 변화에 조응하고 있다. 「독사신론」은 1910년 이전 사회진화론에 의거한 구국운동론의 관점이 반영된 진화론적 역사인식을 반영한다. 그리고 『조선상고사』 '총론'과 「용과 용의 대격전」은 1920년대 중반 이후 민중직접혁명론에 의거한 역사인식을 반영한다.

진화사관에서 혁명사관으로의 변화는 그가 독립 문제를 강자의 관점의 아니라 약자의 관점에서 사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약자가 실력을 쌓아 강자가 된다는 방식에서 강자와 지배자에 대한 부정을 통해 강약, 승패, 지배와 피지배의 구별과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의 결과 그는 '약자의 힘' 또는 '無力의 힘'이라는 모순적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과거 노예와 같은 민중들이 억압받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켜왔던 '저주'의 전통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그는 민중의 저주에 의한 지배 권력의 소멸을 상상하였다.

신채호의 역사관은 독립운동의 실천과 한국사 연구를 결합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실천적 역사관이었다. 따라서 그의 경우 진화사관과 혁명사관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국가건설지향과 민족 자주성의 확립 방법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27] 이 점에서 양자를 동일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범주로 파악하는 관점은 재고를 요한다.

[논문접수:2010.11.20, 심사시작:2010.12.02, 심사완료:2010.12.6]

핵심어 : 신채호, 진화사관, 혁명사관, 민중직접혁명론, 민족주의, 무정부주의, 한국독립운동

27) 김기승, 「신채호의 진화사관과 혁명사관의 대치」,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엮음, 『단재 신채호의 현대적 조명』(도서출판 다운샘, 2003), 141-166쪽 참조.

<ABSTRACT>

Shin Chae-Ho's Independent Movement and His Historical Recognition

Kim, Gi-seung

Shin Chae-Ho (literary name: Danjae) was an intellectual who devoted his life to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s a historian. His study on Korean was not merely scholastic one but practical activities for Korean independence. Therefore, his historical recognition had changed along with his recognition on the idea and methodolog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most famous works in which his historical view was expressed systematically are Doksa Sillon written in The Daehan maeil sinbo in 1908 and History of Chosen (published later as Chosen Sanggosa in a separate volume) in Chosunilbo in 1931. The former reflects his historical recognition prior to 1910. The latter shows his historical point of views after the mid-1920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Fierce Strife between Two Dragons

written in the late 1920s is a historical novel reflecting his independence movement line based on Direct Revolution by People.

In this paper, historical recognitions in both Doksa Sillon and Chosun Sanggosa are compar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investigated. It concerns with the meaning of a nation and national history. Danjae had shifted his historical recognition from historical viewpoint based on Social Darwinism, which supported the stronger, to that of revolutionary historical viewpoint, which advocated the weak people. Danjae's historical novel The Fierce Strife between Two Dragons was written on historical viewpoint of people's revolution. . In the novel, the existing unified ruling class collapses under the 'curse' of the people, and the people's world comes to emerge.

Such a difference in the historical view kept pace with changes of Danjae's independence movement. In other words, since 1910, Danjae had stopped his gradualism line of National Enlightenment Movement based on Social Darwinism, and pushed forward the line of direct revolution by people. Its change was meant that he focused on a violent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and ruling classes on the people's perspective. He defined history as a record of constant struggle between 'I' and 'Non-I' described in the general introduction of Chosun Sanggosa. His definition of history as a constant struggle is the expression about Direct Revolution by People. In this respect, the existing trend of research explaining that Danjae had solely had nationalistic historical viewpoint in the 1920s should be reexamined.

Keywords: Shin Chae-Ho, Historical Viewpoint of Evolution, Revolutionary Historical Viewpoint, Direct Revolution by People,

Nationalism, Anarchism, Korean Independent Movement.

참고문헌

김기승, 「단재의 사상적 변화와 유교」, 『대동문화연구』 29, 1994.
김기승, 「신채호의 진화사관과 혁명사관의 대치」,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단재 신채호의 현대적 조명』, 도서출판 다운샘, 2003.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전집』 전 4권, 형설출판사, 1972-1977.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와 민족사관』, 형설출판사, 1980.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형설출판사, 1986.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 신채호전집』 제1권-9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2008.
배용일,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상의 비교연구』, 경인문화사, 2001.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 한길사, 1984.
신용하,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형설출판사, 1986.
신일철, 『신채호의 역사사상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1.
신채호, 「독사신론」,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7일 - 12월 13일.
신채호, 「조선사」, 『조선일보』 1931년 6월 10일 -10월 14일.
신채호, 『조선상고사』, 종로서원, 1948.
신채호, 「금전, 철포, 저주」, 『단재신채호전집』 하,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75.
신채호, 「용과 용의 대격전」, 『단재신채호전집 제7권 문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신채호 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과제 특집」, 『한국사학사학보』 3, 2001.
이만열,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임중빈, 『단재신채호 전기』,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1980.
최홍규, 『단재 신채호』, 태극출판사, 1979.